

**한국 실내디자인 석사학위 논문을 통해 나타난 제특성에 관한 연구

- 1993년부터 1999년까지 수여된 석사학위 논문을 대상으로 -

A Study on the Analyses of Theses for Master's Degree in Interior Design(1993-9)

정유나* / Jeong, Yoo-N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for the tendency of 391 Masters' theses(among total 405 theses), which were conferred from graduate school in interior design from 1993 to 1999. This study has been developed by two steps. First step is to select factors such as conferment year, graduate school, field and subject and space of study. Second step is to extract the characteristics of five factors and their interrelations during seven years.

The conclusion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In the early years, interior design studies were chiefly made by a few schools. And these studies tended to carry out design projects which were connected with residential, commercial and exhibition space. Space design was an absolutely major subject and field of study. But gradually, by many graduate schools, interior design studies have been developed both in quality and in quantity. Various spaces and various subjects were included with design-oriented theories. It was very natural that the character of study depended upon the graduate school. In the future, interior design study had better add some related designs and theories to support it.

키워드 : 실내디자인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구분야, 연구대상, 공간영역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본 연구는 실내 디자인 분야의 학문적 자리 매김을 위한 기초 연구로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의 특성을 파악하고 미래 이 분야의 연구방향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수행되었다. 즉, 대학원에서 약 30년 간 교육되어 온 실내 디자인 분야의 석사논문을 중심으로 하여 논문에 나타난 연구의 제특성을 추출하고자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논문의 내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포함하였던 연구방법은 별도의 심층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실감하고 이번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요 분석 내용으로는 연구분야, 연구대상, 공간영역 그리고 배출학교와 연도별 경향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진 실내디자인의 연구 역사에도 불구하고 30여년 간 발행된 논문의 편 수는 무려 800여 편에 달하였는데, 단독연구로 처리하기에 매우 방대한 분량이므로 그 50%에 해

당하는 400여 편으로 제한하였다. 이는 시기적으로는 1993년부터 1999년까지 7년 간 발행된 논문에 해당하는 분량이며, 실내디자인 연구가 뚜렷하게 활발히 이루어진 90년대 이후의 경향을 주로 파악할 수 있으나, 1993년 이전의 내용이 후속 연구로 이루어져야 완전한 분석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다.

정리하면 본 연구는 1993년부터 1999년까지 발행된 400여 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실내 디자인 분야의 학위 논문을 통해 나타난 연구의 제특성을 추출하는 것으로써 실내 디자인 연구의 한 단면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국회도서관 분류기호 DDC 747(실내디자인)에 속하는 논문들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석사논문으로 설정한 것은 박사학위논문의 성격이 석사학위논문과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구별 없이 섞어서 분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석사학위논문을 배출한 학교별로 논문을 모두 수집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므로 국회도서관에 소장된 자료들을 활용한 것이다.

* 정회원, 상명대학교 디자인학부 실내디자인전공 부교수

** 본 연구는 1999학년 상명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국회 전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한국 석사·박사 학위논문 총목록]에 수록된 7년 간의 논문은 모두 405편이었는데, 그 중 도서관에서 구할 수 있었던 것은 391(97%)편이었다.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여러 편의 실내디자인 논문들이 분류기호 DDC 747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발견하는 대로 분석자료로 포함하였으나, 후에는 그 추가자료가 또한 일부분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고, 분석자료 선정 기준이 모호하게 되어 배제하였다. 그러므로 선정 기준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자료 수집과정에서 실내디자인으로 학위를 받은 논문일지라도 탈락된 것들이 있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1999년 자료는 현재 국회도서관에서 전체를 모두 수집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분석하려는 내용에 따라 포함여부를 융통성 있게 적용하였다.

연구 진행과정은 먼저, 각 논문의 내용을 수여년도와 학교, 연구분야, 연구대상, 공간영역의 5개 요소별로 구분한 다음, 각 요소별 분포가 나타내는 경향을 중심으로 특성을 추출하였다. 다음, 5개 요소를 쌍으로 선택하여 2개 요소간의 상관관계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파악하였다. 상관 분석의 내용은 10가지로 구분되는데 '수여년도', '연구대상', '공간영역과 배출학교'를 중심으로 3장부터 5장까지 나누어 기술하였다.

2. 분석 요소를 중심으로

2.1. 수여년도와 배출학교

실내디자인 논문은 [한국 석사·박사 학위논문 총목록]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1973년부터 시작하여 1999년까지 총 808편의 논문이 수여되었는데, 1998년까지 26년 간 평균 연 29편이 수여된 셈이다. 그러나 1993년부터 1998년까지 수여된 논문은 연평균 60편으로 전체 평균과 비교할 때 2배 이상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 특히, 1997년, 1998년에는 70편 이상(평균 75편)이 발표되어 급속한 속도로 연구가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참조 <표 1>)

1993년부터 1999년까지 석사학위를 수여한 대학을 조사한 결과 건국, 경성, 계명, 국민, 성신, 숙명, 연세, 이화, 조선, 중앙, 홍익대와 같은 대학들을 중심으로 실내디자인 연구가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홍익대가 46%로 거의 전체 논문의 절반을 차지하며 다음 이화여대가 11%로, 홍익대와 이화여대를 합하면 57%로 실내디자인 연구의 과반수 이상을 두 대학에서 기여하였다. 다음, 성신여대가 8%로 유의할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른 학문분야와 달리 연구가 일부 대학에 편중되어, 90년대 말까지 10개 대학 위주로 석사학위가 수여되고 있는 실정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실내디자인 연구는 학부 과정의 전공을 더욱 심화시킨 일반대학원보다는 다양한 학부 전공을 배경으로 하는 특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표 1>에서 일반대학원에서 수여한 학위는 약 19%에 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대학의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의 비율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특수대학원의 비율이 높은 학교는 성신, 홍익, 중앙, 숙명, 국민, 건

국, 이화여대이고, 일반대학원의 비율이 높은 학교는 계명, 연세, 조선대인 것을 발견할 수 있다.

2.2. 연구분야

연구분야는 이론과 디자인으로 대별하였고, 이론 분야는 공간, 가구, 디스플레이, 요소, 경영(및 관리, 시공분야)의 5개 소분야로, 디자인 분야는 공간, 가구, 디스플레이, 요소의 4개 소분야로 세분하였다. 이러한 분류는 전체적으로 논문을 개괄하면서 실내디자인에서 다루는 분야를 중심으로 설정한 것이다. 소분야에서 공간은 실내공간 전체를 범위로 한 것이며 요소는 부분적인 내용을 다룬 것으로 구분하였다. 공간은 다시 이론분야에서는 지침(방향, 기준 등), 역사(작가론 포함), 심리(행태, 선호도 포함), 방법(기법, 방법론 등)으로 세분하였고, 디자인분야에서는 A형과 B형으로 세분하였는데 A형은 디자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이론적인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디자인론 또는 작가의 이론을 공간에 대입하는 형식)이고, B형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의 이론을 보완하는 성격으로 디자인 부분이 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는 논문이다.

<표 2>의 하부에 나타난 전체 분포 순위는 공간디자인 B형이 전체의 1/2이상으로 가장 높고, 가구이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포 비율에 따라 연구분야는 3개의 분야로 구분되는데, 제1 연구분야는 공간디자인 A형과 B형, 제2 연구분야는 요소 디자인과 이론, 가구와 디스플레이 디자인, 공간 이론 중 지침과 방법이며, 제3 연구분야는 디스플레이와 가구 이론, 공간 이론 중 역사, 심리 또한 경영 분야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이론분야가 21%, 디자인분야가 79%로써, 디자인 분야가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을 보이며, 이론 분야에서는 공간관련 분야가 62%로 가장 높고, 요소> 경영> 디스플레이> 가구 순이며 다시 공간관련 분야에서는 디자인 지침>방법>역사>심리 순으로 지침이나 방법과 같은 디자인 오리엔티드된 공간이론이 심리나 역사 같은 순수 이론 성격보다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디자인 분야에서는 공간관련 분야가 84%로 가장 높고, 요소> 가구, 디스플레이로 이론과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다시 공간 디자인에서 B형이 A형보다 4배정도 높아 실내디자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연구가 실내연구의 주경향이었음을 알 수 있다.

2.3.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이론과 디자인의 분야를 통합하여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대상을 중심으로 공간, 가구, 디스플레이(디스), 건축구성요소(건축), 조명, 색채, 조경, 재료, 장식, 요소일반(요소), 경영의 11개 항목을 설정하였다. 또, 연구분야를 이론과 디자인 분야로 대별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단순하게 처리되었던 요소 분야가 연구대상에서는 건축구성 요소, 조명, 색채, 조경, 재료, 장식, 요소 일반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났다. 여기서 건축구성 요소는 파티션, 벽, 창, 문과 같은 것을 주로 다룬 연구이며 요소 일반은 건축구성 요소를 포함하여 재

료나 색채와 같은 모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다루어 어떤 특정한 요소로 분류할 수 없는 내용의 것이다.

연구 대상에 관한 분포는 <표 3>의 우측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공간이 압도적인 비율(79.6%)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의 대상들은 평균 2%정도에 불과하다. 평균을 상회하는 대상으로 디스플레이, 가구, 색채, 조명이 있었으며, 재료에 관한 연구가 가장 열악한 것을 알 수 있다. 연구의 편중현상이 뚜렷하게 보여지는데 실내디자인의 학문적 고른 발전을 위해서는 공간디자인을 뒷받침할 수 있는 건축적, 설비적 요소들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전개되어야 함을 발견할 수 있다.

연구 대상은 분포 비율에 따라 3부분으로 구분되는 데, 제1 연구 대상은 다른 대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있는 공간 단독이며 제2 연구대상은 디스플레이, 가구, 색채, 조명, 제3 연구대상은 건축구성요소, 조경, 장식, 경영, 재료가 해당한다.

2.4. 공간 영역

공간영역의 구분은 한국실내디자인학회에서 제시한 '공간별 시설 분류표'의 기준에 의거하여 분류한 것이다. 단지 상업공간은 [실내디자인각론]에서 분류한 것과 같이 판매공간과 식음료공간으로 구분, 적용하였고, 공간구분에서 표기된 '상업'은 특정한 공간으로 구분할 수 없는 전체적 성격을 띤 상업공간인 경우, '복합'은 복합문화공간으로 전시, 상업, 관람 등 여러 성격의 공간이 동시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일반'은 특정공간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나 모든 공간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이다. '기타'는 전체적인 비율이 너무 낮은 방송, 종교, 특수(장례식장)시설 등을 포함한 것이다.

공간영역은 <표 4>의 하부와 같이 20개 영역 이상으로 폭넓게 분포되어 있었으나 주로 다루어졌던 영역으로는 주거(19%), 판매(18%), 전시(14%)공간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업공간을 판매+식음료+상업공간으로 할 경우 25%로 상업공간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다.

공간영역 또한 분포 비율에 따라 4영역으로 구분되었는데, 제1 영역은 주거, 판매, 전시공간이며 제2 영역은 업무, 의료, 식음료, 복지공간, 공간일반, 제3영역은 교육, 숙박, 복합공간, 제4영역은 공공, 운동, 관람, 운수, 휴게, 산업공간으로, 실내디자인 연구가 수용하는 공간영역이 매우 다양하므로 특정한 영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제1영역에 속하는 공간 이외에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수여년도를 중심으로

3.1. 수여년도와 배출학교의 상관 분석

<표 1>의 1993년부터 1999년까지 나타난 특징을 살펴보면, 그 이전에 연구의 중심이 되었던 홍익대 산미대학원과 환경대학원, 이화여대 산미대학원, 성신, 숙명, 경성대의 산업대학원에서 나아가 실내디자인을 가르치는 특수 혹은 전문대학원이 많이 증설되었다는 것이

다. 이 시기에는 중앙대 건설대학원, 국민대 디자인대학원, 건국대 건축대학원과 디자인대학원 그리고 상명대 디자인대학원 등에서 연구가 이루어져 점차 다극화현상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건국대와 중앙대가 해마다 논문 편수가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과 홍익대와 이화여대는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이화여대는 1991년에 14편을 정점으로, 홍익대는 93년의 34편을 정점으로 한 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이화여대와 홍익대는 전체 57%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고 중앙대와 건국대(5%)는 이화여대(11%)의 절반에 미치는 정도이다.(참조 <표 1>)

3.2. 수여년도와 연구분야의 상관 분석

이 시기의 연구분야는 1997년을 전후하여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돋보인다. 1996년까지는 디자인분야가 85%이상으로 이론과 비교하여 압도적인 비율을 보였으나, 1997년 이후부터는 이론분야의 연구가 진전되어 이론이 30%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또한, 디자인분야의 308편은 해마다 큰 변화 없이 고른 분포를 보이는 반면, 이론분야의 84편은 96년까지 연10%미만이었던 것이 97년 이후 20%이상으로 증가하여 이론부분의 증가가 뚜렷함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경향은 배출학교의 다양한 분포와 함께 다양한 실내연구가 점차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론 분야 중에서 공간 지침과 요소 이론은 매년 꾸준히 연구되고 있으며, 1997년 이후, 공간 이론들-지침, 역사, 심리, 방법론-이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고 고르게 연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디자인 분야에서는 공간디자인과 더불어 요소 디자인이 꾸준히 연구되고 있으며, 가구디자인과 디스플레이 디자인은 특정 년도에 집중적으로 분포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흥미 있는 것은 공간디자인 중에서 A형과 B형이 비율이 93년 1:10, 94년 1:7, 95년 1:5, 96년 1:4, 97년 1:3, 98년 1:2로 점차 B형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데 A형이 디자인이론이나 디자인사 혹은 작가의 작품기법을 분석하여 공간에 적용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연구라 할 때 이와 같은 경향은 공간 디자인 연구의 성격이 단순히 프로젝트를 전개하는 데서 발전하여 디자인 전개를 위한 컨셉이나 배경으로서 이론적인 부분이 강화되는 것을 의미하며, 디자인을 학술적인 방향에서 접근하려고 하는 것을 암시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연구분야에서 이론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참조 <표 2>)

3.3. 수여년도와 공간영역의 상관 분석

실내디자인 연구의 주공간 영역으로 해마다 선정되는 공간은 교육, 식음료, 판매, 업무, 의료, 전시, 주거, 공간일반- 8영역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복지, 숙박, 운동공간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간 영역이었다. 운수, 휴게, 복합공간과 공공, 관람, 산업공간은 거의 2년에 한 번의 비율로 선정되었다.

이러한 분석은 '2.4. 공간영역에 관한 분석'에서 공간영역이 차지

하는 편수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의 의미를 보완해 준다. 해마다 연구되는 주영역에 속하는 교육공간은 편수로 볼 때 복지공간보다 적지만 꾸준히 연구대상으로 선정되었고, 운동공간 역시 매우 낮은 편수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해마다 연구대상으로서 선정되어 연구 대상 공간의 성격을 시사하는 바 있다.

한편, 해마다 공간 영역별 분포 순위에 대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전체적인 비율을 거의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 다만 현재 기타에 속하는 영역들이 점차 다양한 연구를 바탕으로 실내디자인의 한 연구 영역으로 부각될 것으로 판단된다.(참조 <표 4>)

4. 연구대상을 중심으로

4.1. 연구대상과 수여년도의 상관 분석

연구대상 중에서 공간의 경우 해마다 편수의 차이는 있으나 매년 연구대상에서 전체 평균과 거의 비슷한 80% 내외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다음, 편수는 적으나 색채에 관한 연구가 매년 꾸준히 대상으로 선정되어 실내디자인에서 색채가 연구대상으로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장식과 경영 부분은 반대되는 성향을 보이고 있는데 장식은 점차 연구가 감소되는 추세인 반면, 경영과 관계된 부분은 증가하고 있어 실내디자인의 장식적 측면이 감소하고 연구범위가 또한 디자인 오리엔티드된 연구의 범위로부터 점차 실무적인 범위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참조 <표 3>)

4.2. 연구대상과 연구분야의 상관 분석

연구대상별로 이론과 디자인이 어떤 분포를 이루는지 분석한 결과, 각 대상은 이론과 디자인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에서 디자인 분야가 80%가 넘는 대상들, 즉 이론보다는 디자인 위주로 연구된 것들은 공간, 가구, 디스플레이, 건축적 요소, 재료이며, 이와 반대로 이론 위주로 연구된 것들은 색채와 조명이었다. 조명은 이론과 디자인이 거의 고르게 분포하였다. 순수하게 이론적인 연구로만 이루어진 것은 경영관련 부분이었다.

다음, 이론 분야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순서는 공간 지침>공간 방법>색채>공간 역사>공간 심리(=조명)>디스플레이(=조경)와 같으며, 요소를 세분한 7항목 중에서 색채가 45%(20편 수종의 9편)를 차지하고 있어 색채가 요소의 주요 분야로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가구, 장식, 건축적 요소, 재료는 거의 이론 연구가 시행되지 않았다.

디자인분야에서는 공간 디자인 B형>공간 디자인 A형>가구(=디스플레이)>조명(=장식)>건축적 요소>색채 순으로 요소에 해당하는 항목이 디스플레이 뒷부분에 그대로 연결되지만 디자인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공간 디자인이 84%인데 반하여 조명과 장식은 각각 2%, 나머지 대상들은 지극히 미미한 비율에 불과하다.(참조 <표 5>)

4.3. 연구대상과 공간영역의 상관 분석

연구대상 중 공간 부분에서는 전시>주거>판매공간 순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서 상업공간을 판매+식음료+상업일반 공간으로 하면 상업>전시>주거로 상업공간이 가장 높게 된다. 이것은 연구대상별로 구분하지 않은 24의 분석 결과, 즉 상업>주거>전시공간의 순위와 다르게 나타났는데 그것은 전시공간은 공간 위주로 연구되었고, 주거공간은 공간 이외의 연구 대상과 관계가 많기 때문이다. <표 6>을 보면 전시공간은 총 57편 가운데 56편이 공간에 분포되어 있고, 주거공간은 총 77편 가운데 55편이 공간에 분포되어 있다.

다음으로 공간 부분에서 주로 다룬 영역은 업무>의료>복지(=식음료)공간인데 24의 제2영역과 비교하면 공간일반 영역만 제외되었다. 이것은 공간 일반 영역에서 공간이외의 다른 대상 즉, 조명과 장식, 경영 부분에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인데, 공간 일반 영역은 공간 부분(27%)보다 오히려 공간 이외의 대상(73%)에 훨씬 더 높은 분포를 보인다.

연구대상과 공간영역의 상관 분석은 시사하는 바가 큰데, 그것은 공간영역에서 공간이외의 다른 대상들과의 구체적인 관계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즉, 교육공간에서는 색채(23%)가, 판매공간에서는 디스플레이(20%)가, 주거공간에서는 가구(13%)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연구되었음을 보여준다.

<표 6>의 상관 분석에서 가구나 디스플레이처럼 하나의 공간영역(가구는 주거공간, 디스플레이는 판매공간)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보이는 유형과, 연구 대상이 몇 개의 공간영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유형 그리고 여러 공간영역에 고루 분산되어 있는 유형으로 구분이 된다. 몇 개의 공간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유형에 속하는 대상은 색채인데 교육, 판매, 주거공간에서 거의 같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여러 공간 영역에 분산되어 있는 유형에 속하는 대표적인 대상은 조명으로 관람, 식음료, 판매, 업무, 주거공간에 편수는 많지 않으나 고루 분포되어 있다.(참조 <표 6>)

5. 공간영역 및 수여학교를 중심으로

5.1. 공간영역과 수여학교의 상관 분석

공간영역에서 판매공간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학교(건국대, 계명대, 성신여대, 조선대)와 주거공간이 큰 비율을 보이는 학교(숙명여대, 연세대, 중앙대) 그리고 전시공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학교(이화여대, 홍익대)로 구분이 되었다. 전체적으로 판매공간 위주로 연구가 시행된 학교가 가장 많고, 다음 주거공간과 전시공간이었다. 실내디자인의 주 공간영역으로 상업공간 특히 판매공간이 많은 대학에서 다루어짐을 알 수 있다.

한편, 연세대 주거공간의 비율은 46%로 한 학교에서 한 공간영역을 기준으로 볼 때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러 대학을 합한 기타 항

목에서 또한 주거공간이 39%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실내디자인 연구를 전개하는 단계에서 주거공간이 시발점이 됨을 알게 한다.

가장 많은 논문 편수를 차지하고 있는 홍익대와 이화여대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화여대는 전시>판매 순이고, 홍익대는 전시>주거>판매 순으로 2.5의 분석결과인 주거>전시>판매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홍익대와 이화여대는 전시공간이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전시공간을 기준으로 보면 이화여대가 19%, 홍익대는 61%로 두 학교가 전시공간의 80%를 연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실내디자인 연구의 공간영역이 주거공간에서부터 시작하여 일반적으로 그 다음 판매공간으로 확장되고, 그 다음 디자인 이론이나 방법을 적용한 새로운 공간개념을 학술적으로 전개한 전시공간으로 나아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홍익대의 공간영역 분포는 양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나 다양하며 풍부한 것으로 휴게공간과 공간일반을 제외한 다른 공간 영역에서 모두 영역별 1순위를 차지하였다. 휴게공간과 공간일반은 이화여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화여대 연구의 특성 중 일부분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홍익대의 공간영역 분포 특성은 2.5의 단순 공간영역 분포와 비교할 때 영역별이나 순위별로 일치한다고 볼 수 없었는데, 이는 한 학교를 중심으로 양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학교의 성향이 실내디자인 연구 전체 특성을 대표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참조<표 7>)

5.2. 공간영역과 연구분야의 상관 분석

거의 모든 공간영역에서 디자인 분야가 이론분야보다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공간 영역 중에서 디자인 분야 연구만 시행된 공간(공공, 산업, 운동, 휴게, 복합공간, 기타)이 있었으며, 디자인 분야가 전체 평균(78.5%)보다 높게 연구된 공간(교육, 복지, 업무, 의료, 전시공간)과 이와 반대로 이론 분야가 전체 평균(21.5%)보다 높게 연구된 공간(관람, 숙박, 식음료, 판매, 주거, 공간일반)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여기서 판매공간과 주거공간은 이론과 디자인 분야 모두 가장 많은 항목에 고루 분포되어 있어 주거와 판매공간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다양한 접근 방식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공간영역의 분야별 분포를 분석하면 주거공간은 이론 분야 8개 항목 중에서 공간이론(지침, 역사, 심리, 방법)과 요소의 5개 항목에서 다른 영역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디자인 분야에서는 5개 항목 중 가구와 요소 디자인에서만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판매공간 역시 실내디자인의 주영역으로서 다양하게 접근되고 있으나 특징적인 것은 이론과 디자인 모두 디스플레이와 절대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다. 디스플레이 이론은 판매공간에서만 나타나며, 디자인 또한 92% 판매공간에서 나타나고 있다.

공간일반에서는 이론 분야의 경영 항목에, 디자인 분야의 요소 디자인 항목에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론분야의 항목 가운데 공간이론 지침, 공간이론 방법, 요소 이론 항목이 비교적 여러 공간영역에 넓게 분포되어 있고, 디자인 분

야의 경우는 공간 디자인 B형이 모든 공간영역에 분포되어 있는 것과 달리 공간디자인 A형은 전체 공간 영역의 2/3정도로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참조 <표 8>)

5.3. 수어학교와 연구분야의 상관 분석

학교에 따른 연구분야의 분포는 이론 위주로 연구가 시행된 학교와 디자인 위주로 된 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이론 연구를 위주로 한 학교는 건국대, 계명대, 연세대, 조선, 중앙대이며, 디자인 연구를 위주로 한 학교는 경성대, 국민대, 성신여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홍익대로 나타났다. 이론 위주의 학교 중에서 연세대는 이론 100%를 보이고 있으며 디자인 위주의 학교 중에서 디자인이 95%가 넘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학교는 홍익>성신>이화여대 순이었다. 이론 중심의 연세대는 이론 중에서도 공간관련 이론(지침, 방법) 저항적인 경향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었는데, 디자인 연구를 시행하지는 않았으나 디자인의 방향을 설정하고 좋은 디자인을 이루어나가기 위한 방법에 비중을 두어 연구가 수행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디자인 중심의 홍익대는 디자인 분야 5항목 중 공간 디자인 B형을 비롯한 가구디자인, 디스플레이, 요소디자인의 4항목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다만 공간 디자인 A형에서는 매우 근소한 차이로 이화여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성신여대 또한 강한 디자인 위주의 연구 성향을 보이는데 공간디자인 A형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이화여대는 디자인 분야 중에서 공간 디자인 A형이 공간 디자인 B형보다 2배 이상의 비율을 보였는데 이는 이화여대가 다른 학교와 차별되는 이론이 강한 디자인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홍익대는 공간 디자인 B형 위주로 공간 디자인 A형은 B형의 1/6정도에 불과하다)

이론 항목 가운데 공간 지침 이론은 많은 대학에서 연구되고 있는데 반하여 공간 심리나 행태이론은 공간관련 이론 중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이 방면의 연구가 아직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데 흥미로운 것은 그 연구의 대부분이 연세대에서 수행되었다는 것이다.(참조 <표 9>)

5.4. 수어학교와 연구대상의 상관 분석

학교와 연구대상의 상관 분석 결과 건국대와 조선대를 제외한 모든 대학이 공간을 70%이상 연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공간에 대한 비중이 가장 높은 대학은 연세대(92%)와 홍익대(91%)로 나타났다. 공간에 대한 비중이 가장 낮은 학교는 조선대(33%)로 이 학교는 공간 이외에 조명(25%), 색채(17%), 디스플레이(17%) 등 여러 대상에 걸쳐 고루 연구된 것을 알 수 있으며, 건국대 역시 공간의 비중(48%)이 낮으면서, 경영(14%), 장식(10%), 조명(10%) 및 가구, 디스플레이, 색채, 요소 등 가장 다양하게 연구가 수행된 것을 볼 수 있다.

공간에 대한 비중이 높은 홍익대와 연세대는 그러나, 대상 분포 면에서는 상이한 현상을 보였다. 연세대가 공간 이외에 색채 분야

밖에 없는 반면, 홍익대는 가구, 디스플레이, 건축, 조명, 색채, 조명, 재료를 대상으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었다.

연구대상을 기준으로 볼 때, 홍익대를 제외하고 가구에서는 성신여대, 디스플레이에서는 경성대, 조명과 색채에서는 조선대, 경영에서는 건국대가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다.(참조 <표 10>)

6. 요약 및 결론

실내 디자인 교육이 보다 활발하게 전개된 90년대 이후 발표된 석사학위 논문을 대상으로 2장부터 5장까지의 분석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수여년도와 배출학교, 연구분야, 연구대상, 공간영역의 분석을 통하여 나타난 것이다. 1973년부터 분류된 실내디자인 분야의 논문이 90년대 말에 이르러 매우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져 연평균 51편 정도가 수여되고 있으며, 최근 97년, 98년에 이르러는 연평균 75편 정도로 더욱 발전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는데 이러한 급속한 발전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금까지 실내디자인에 관한 연구는 일부 대학에 편중되어 왔었으며 홍익대와 이화여대가 전체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연구분야는 이론과 디자인 분야로 구분하여, 전체적으로 프로젝트 진행 성격이 강한 공간디자인 B형이 1/2이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론과 디자인의 비율은 디자인이 4배 정도 많았으며, 이론과 디자인 분야 모두 요소, 가구, 디스플레이 보다 공간관련 부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공간, 가구, 디스플레이 외에 실내디자인 요소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의 연구경향이었다.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공간 이외에 다른 대상들로서 평균을 상회하는 것들은 디스플레이와 가구, 색채, 조명이었으며 연구대상으로서 재료에 관한 연구가 가장 열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분야와 연구대상을 통해 지금까지 공간 디자인 중심으로 편중되어 연구가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고, 앞으로 이러한 공간 디자인을 뒷받침할 수 있는 건축적, 설비적, 이론적 부분들의 연구가 점차 활발하게 전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공간영역에서는 전문분야로 자리잡은 실내디자인 영역답게 20개 이상 폭넓은 공간영역을 대상으로 연구가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가운데 주로 다루어진 공간영역은 주거, 판매, 전시공간이며, 상업공간을 판매+식음료+상업일반으로 할 경우에는 상업공간이 주거공간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다음은 두 개의 요소별로 상관분석을 시행하여 나타난 내용이다.

우선 수여년도와 배출학교와의 상관 분석을 통하여 1995년부터 여러 대학에서 전문대학원 혹은 특수대학원 형태로 많은 대학원을 개설하여 적극적인 연구활동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점차 홍익대와 이화여대 두 대학이 차지하는 비율은 절대적,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중앙대, 건국대를 비롯한 여러 대학 중심으로 연구가

진개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수여년도와 연구분야의 상관 분석에서는 1997년부터 디자인분야에 대한 절대적 비중으로부터 이론 분야의 연구가 뚜렷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여년도와 공간영역과의 상관분석에서는 교육, 식음료, 판매, 업무, 의료, 전시, 주거, 공간일반이 매년 연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교육공간은 연구량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선정되었다.

연구대상과 수여년도와의 상관 분석에서는 해마다 꾸준히 연구되는 대상으로 공간 이외에 색채가 돌보였고, 연구대상과 연구분야와의 상관 분석에서는 디자인 위주로 연구된 것-공간, 가구, 디스플레이, 건축적 요소, 재료-과 이론 위주로 연구된 것-색채, 조명-으로 구분되어 공간 이외에도 디자인 위주로 연구된 대상들이 대부분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대상과 공간영역과의 분석에서 가구나 디스플레이는 한 개의 영역 즉, 가구는 주거공간, 디스플레이는 판매공간과 뚜렷하게 높은 상관 관계를 보인 반면, 색채는 교육, 판매, 주거공간과 주로 관계가 밀접한 것으로 나타났고, 조명은 여러 공간 영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어 다양한 공간과 관련지어 연구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공간영역과 수여학교의 관계는 판매공간, 주거공간, 전시공간의 세 공간을 중심으로 학교들이 구분되는 데, 판매공간을 위주로 연구한 학교가 가장 많았다. 또한, 공간영역과 연구분야와의 관계는 모든 공간 영역에서 디자인이 이론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디자인 분야 연구만 나타난 공간들-공공, 산업, 운동, 휴게, 복합, 기타-도 있었다. 수여학교와 연구분야와의 관계는 이론 중심과 디자인 중심의 학교로 구분이 되었는데, 이론 중심의 학교로는 연세대, 중앙대, 계명대, 디자인 중심의 학교로는 홍익대, 성신여대, 이화여대가 대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대의 경우는 이론 연구만 수행되었으며 특히 공간 관련 이론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수여학교와 연구대상과의 관계는 홍익대가 여러 대상에 걸쳐 고루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홍익대를 제외하면 가구에서는 성신여대, 디스플레이에서는 경성대, 조명과 색채에서는 조선대, 경영에서는 건국대가 조금 높게 나타났다.

1993년부터 1999년까지 연구된 경향은 초기에는 소수 대학 위주로 주거, 상업, 전시공간의 공간디자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연구 경향을 보였으나, 점차 다중심적인 학교 분포를 보이며 주거공간 영역(주거, 상업, 전시)들을 포함한 다양한 공간들을 대상으로 디자인을 수행하는 근거 또는 발전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이론 분야의 연구가 활발해 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흥미 있는 것은 학교별로 뚜렷한 연구 성격-분야별, 대상별, 공간영역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실내디자인의 연구는 학교별 연구 특성을 바탕으로 연구의 내용을 심화하면서 공간디자인을 보완하는 여러 건축적, 설비적, 요소적 디자인과 이론부분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표 1> 1993-9 석사논문의 수여년도와 배출학교 상관 분포

년도	학교														합	%	비고
	건국	경성	계명	국민	성신	숙명	연세	이화	조선	중앙	홍익	기타					
3	2(2)	7(6)			6	2(1)	2(2)	6(2)			23+11	3(2)	62(15)	15.3			
4		2(1)		1(1)	4			11	1(1)		15+14+1(1)	3(1)	42(5)	10.4			
5		1(1)	2(2)		7		1(1)	9(3)	1(1)	1	16+10	5(2)	53(9)	13.1	중-건설, 박사3		
6	2	3(2)		1	4			7(1)	3(3)	1(1)	14+16	3(1)	54(8)	13.3	건-산업, 국-디자		
7	5	2(1)	2(2)	3	5	1	6(6)	6(1)	5(5)	6	21+12	5(5)	79(20)	19.5	숙-디자, 박사-1		
8	6+2+1	1	4(4)	2	3	2	1(1)	5(1)			21+11	4(4)	75(19)	19.2			
9	3(1)				4	4	3(2)	1	1	4	14+8	11(9)	71(14)	17.5	건-건축+교육, 박사-3		
합	21(3)	16(10)	8(8)	7(1)	33	9(1)	13(12)	46(7)	12(10)	21(1)	6+8+5	34(21)	405(76)	110			
%	5.2	4.0	2.0	1.7	8.1	2.2	3.2	11.4	3.0	5.2	1.5	8.4	100(18.8)	100			
*합	54	38	20	1.8	7.9	23	33	10.7	3.1	54	46.3	7.9	100(18.4)	100			

1. (): 일반대학원에서 수여한 논문 편 수.
2. + : 여러 대학원에서 수여한 경우, 신발 특수(전문) 대학원 + 후발 특수(전문대학원) + 일반대학원 순으로 분리.
3. * : 실제로 분석한 논문 편 수
4. 기타 대학: 경남, 경북, 강원, 고려, 단국, 대구호성기톨릭, 동아, 명지, 부산, 상명, 서울산업, 세종, 영남, 인하, 한양, 한성대 등.

<표 2> 1993-9 석사논문의 수여년도와 연구분야의 상관 분포

년도	이 름												디 자 인						합계	%	비고			
	공간				가구	디스플레이	요소	경영, 공사	소계	%1	%2	%3	공간		가구	디스플레이	요소	소계				%1	%2	%3
	지질	역사	심리	방법									A	B										
1993	2	1				1	2	1	7	11.5	8.3	1.8	4	38	1	6	5	54	88.5	17.5	13.8	61	15.6	
4	1			1					3	7.5	3.6	0.8	4	28		3	2	37	92.5	12.0	9.4	40	10.2	
5	3	1					4		8	14.8	9.5	2.0	6	31	2	1	6	46	85.2	14.9	11.7	54	13.8	+1
6	2					1	3	1	7	13.7	8.3	1.8	7	29	4	1	3	44	86.3	14.3	11.2	51	13.0	
7	4	2	2	7			6	3	24	32.0	28.6	6.1	11	33	2		5	51	68.0	16.6	13.0	75	19.1	
8	8	2	2	2	1	1	2	2	20	29.4	23.8	5.1	16	27	2	1	2	48	70.6	15.6	12.2	68	17.3	
9	3	2	1	6			2	1	15	34.9	17.9	3.8	3	23	1		1	28	65.1	9.1	7.1	43	11.0	
합계	23	8	5	16		1	3	20	84			21.4	51	209				308				392	100	+1
%2	27.4	9.5	6.0	19.0		1.2	3.6	23.8	9.5	100			16.6	67.9				100						
%3	5.9	2.0	1.3	4.1		0.3	0.8	5.1	2.0	21.4			13.0	53.3				78.6						

1. %¹: 당해 년도의 논문 편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백분율
2. %²: 분야별(이름-84편, 디자인-308편) 논문 편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백분율
3. %³: 논문 총 편 수(392편)를 기준으로 산정한 백분율(연구분야 분석시행 총 편수는 392편으로, 이는 1995년 논문 내용상 2개 분야에 중복, 산정된 것으로 인함)

<표 3> 1993-9 석사논문의 연구대상과 수여년도의 상관 분포

대상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합계	%
공간	45	34	41	38	59	57	38	312	79.6
가구	1		2	4	2	3	1	13	3.3
디스	7	3	1	2		2		15	3.8
건축	1		1	1	1		1	5	1.3
조명	2			2	5	1	1	11	2.8
색채	1	1	4	3	2	2		13	3.3
조경		1	2			1		4	1.0
재료					1			1	0.3
장식	3	1	2		1			7	1.8
요소			1		1		1	3	0.8
경영	1			1	3	2	1	8	2.0
합계	61	40	54	51	75	68	43	392	100
%	15.6	10.2	13.8	13.0	19.1	17.3	11.0	100	
비고			+1						

1. 연구대상 분석시행 총 편수는 392편으로, 이는 1995년 논문 내용상 2개 대상에 중복, 산정된 것으로 인함.

<표 4> 1993-9 석사논문의 수여년도와 공간영역의 상관 분포

년도	공간																			합계	%	비고	
	공공	관람	교육	복지	산업	숙박	식음료	판매	상업	업무	운동	운수	의료	전시	주거	휴게	복합	기타	일반				
1993			1	2	1		2	15		4	1	1	3	10	12		2		7	61	15.4		
4	2		2	3			1	9		2	1		1	8	5	2	2		2	40	10.1		
5	2	1	3	4			2	1	5	1	4	1	1	4	11	8	1		1	4	54	13.7	+1
6			1	2	1		4	3	8	1	3	1		5	5	11		3		5	53	13.4	+2
7	2	1	3	6	1		2	6	7		6			6	10	18	1			6	75	19.0	
8		2	2				1	7	15	1	4	1	1	2	9	14	1	3	2	3	68	17.2	
9			1	2			2	1	11	3	4	1	1	1	4	8			2	3	44	11.1	+1
합계	6	4	13	19	3	11	21	70	6	27	6	4	22	57	76	5	10	5	30	395	100	+4	
%	1.5	1.0	3.3	4.8	0.8	2.8	5.3	17.7	1.5	6.8	1.5	1.0	5.6	14.4	19.2	1.3	2.5	1.3	7.6	100			

1. 공간영역 분석 시행 총 편수는 395편으로 이는 논문 내용상 공간영역을 중복, 산정한 것으로 인함(95년-2영역, 96년-3영역, 98년-2영역)

<표 5> 1993-9 석사논문의 연구대상과 연구분야의 상관 분포

대상	이론																			디자인									합계	%	비고
	공간				가구	디스	요소	경영	소계	%1	%2	%3	공간		가구	디스	요소	소계	%1	%2	%3										
	지침	역사	심리	방법									A	B																	
공간	23	8	5	16					52	16.7	61.9	13.3	51	209				260	83.3	84.4	66.3	312	79.6								
가구					1				1	7.7	1.2	0.3			12			12	92.3	3.9	3.1	13	3.3								
디스						3			3	20.0	3.6	0.8				12		12	80.0	3.9	3.1	15	3.8								
건축							0		0	0	0	0					5	5	100	1.6	1.3	5	1.3								
조명							5		5	45.5	6.0	1.3					6	6	54.5	1.9	1.5	11	2.8								
색채							9		9	69.2	10.7	2.3					4	4	30.8	1.3	1.0	13	3.3								
조경							3		3	75.0	3.6	0.8					1	1	25.0	0.3	0.3	4	1.0								
재료							0		0	0	0	0					1	1	100	0.3	0.3	1	0.3								
장식							1		1	14.3	1.2	0.3					6	6	85.7	1.9	1.5	7	1.8								
요소							2		2	33.3	2.4	0.5					1	1	66.7	0.3	0.3	3	0.8								
경영								8	8	100	9.5	2.0					0	0	0	0	0	8	2.0								
합계	23	8	5	16									51	209																	
	52				1	3	20	8	84				21.4	260	12	12	24	308				78.6	392	100	+1						

- 1. %¹: 연구대상별 이론과 디자인의 분포 비율.
- 2. %²: 분야별(이론-84편, 디자인-308편) 논문 편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백분율
- 3. %³: 논문 총 편 수(392편)를 기준으로 산정한 백분율(연구분야 분석시행 총 편수는 392편으로, 이는 1995년 논문 내용상 2개 분야에 중복, 산정된 것으로 인함.)

<표 6> 1993-9 석사논문의 연구대상과 공간영역의 상관 분포

대상	공간																			합계	%	비고
	공공	관람	교육	복지	산업	숙박	식음료	판매	상업	업무	운동	운수	의료	전시	주거	휴게	복합	기타	일반			
공간	6	3	10	18	3	9	18	50	5	24	6	4	20	56	55	5	9	5	8	314	79.3	+2
가구										1					10				2	13	3.3	
디스								14									1			15	3.8	
건축						1		1	1						3				1	7	1.8	+2
조명		1					1	1		1					1				6	11	2.8	
색채			3	1				3					1		4				1	13	3.3	
조경							1						1		2				4	10	2.8	
재료															1				1	7	1.8	
장식																			7	7	1.8	
요소							1	1							1				3	8	2.0	
경영								1		1				1					5	8	2.0	
합계	6	4	13	19	3	11	21	70	6	27	6	4	22	57	77	5	10	5	30	396	100	
%	1.5	1.0	3.3	4.8	0.8	2.8	5.3	17.7	1.5	6.8	1.5	1.0	5.6	14.4	19.4	1.3	2.5	1.3	7.6	100		

<표 7> 1993-9 석사논문 의 공간영역과 수어학교의 상관 분포

학교 공간	건국	경성	계명	국민	성신	숙명	연세	이화	조선	중앙	홍익	기타	합계	%
	공공								1			4	1	6
관람	1								1		2		4	1.0
교육		1							1		9	2	13	3.3
복지					4		3	2			10		19	4.8
산업											3		3	0.8
숙박	2							2		2	5		11	2.8
식음료	1	3	1	1	1	1	2	1		2	6	2	21	5.3
판매	6	4	3	2	8	1		5	4	5	29	3	70	17.7
상업	1	1				1		1			2		6	1.5
업무		1	1	2	2		1	1	1		15	3	27	6.8
운동	1				1			1			3		6	1.5
운수								1			3		4	1.0
의료	1				1			1	2	1	15	1	22	5.6
전시	1	1		1	4			11		3	35	1	57	14.4
주거	2	4	1		6	3	6	4	2	6	30	12	76	19.2
휴게								4			1		5	1.3
복합				1				3			6		10	2.5
기타						1				1	3		5	1.3
일반	5		2		4	2	1	5	1	1	3	6	30	7.6
합계	21	15	8	7	31	9	13	43	12	21	184	31	395	100
%	5.3	3.8	2.0	1.8	7.8	2.3	3.3	10.9	3.0	5.3	46.6	7.8	100	

<표 8> 1993-9 석사논문 의 공간영역과 연구분야의 상관 분포

분야 공간	이론											디자인						합계	%3	비고						
	공간				가구	디스플레이	요소	경영,공사	소계	%1	%2	%3	공간		가구	디스플레이	요소				소계	%1	%2	%3		
	지침	역사	심리	방법									A	B												
공공									0	0	0	0						6	100	1.9	1.5	6	1.5			
관람	1							1	2	50	24	0.5	1	1				2	50	0.6	0.5	4	1.0			
교육								2	2	15.4	24	0.5		10			1	11	84.6	3.5	2.8	13	3.3			
복지	2		1						3	75	3.5	0.8		15			1	16	25	5.1	4.0	19	4.8			
산업									0	0	0	0	1	2				3	100	1.0	0.8	3	0.8			
숙박				2				1	3	27.3	3.5	0.8	2	5		1	8	72.7	2.6	2.0	11	2.8				
식음료	2		1	2				3	8	38.1	9.4	2.0	4	9				13	61.9	4.2	3.3	21	5.3			
판매	5		1	2			3	4	1	16	22.9	18.8	4.0	6	36		11	1	54	77.1	17.4	13.6	70	17.7		
상업		2		1					3	50	3.5	0.8		2			1	3	50	1.0	0.8	6	1.5			
업무	1			1				1	3	11.1	3.5	0.8	3	19	1		1	24	88.9	7.7	6.1	27	6.8			
운동									0	0	0	0	2	4				6	100	1.9	1.5	6	1.5			
운수									0	0	0	0		4				4	100	1.3	1.0	4	1.0			
의료	2								2	9.1	24	0.5	1	17			2	20	90.9	6.4	5.1	22	5.6			
전시	1			1				1	3	5.3	3.5	0.8	14	40				54	94.7	17.4	13.6	57	14.4			
주거	9	3	2	5	1		6		26	33.8	30.6	6.6	7	29	9		6	51	66.2	16.4	12.9	77	19.4	+1		
휴게									0	0	0	0	3	2				5	100	1.6	1.3	5	1.3			
복합									0	0	0	0	6	3		1		10	100	3.2	2.5	10	2.5			
기타									0	0	0	0		5				5	100	1.6	1.3	5	1.3			
일반		3		3			3	5	14	46.7	16.5	3.5	2		2		12	16	53.3	5.1	4.0	30	7.6			
합계	23	8	5	17	1	3	20	8	85			21.5	52	209	12	12	26	311				78.5	396	100		
	53												261													

<표 9> 1993-9 석사논문의 수여학교와 연구분야의 상관 분포

분야 학교	이론											디자인									합계	%3	비고		
	공간				가구	디스플레이	요소	경영, 공사	소개	% ¹	% ²	% ³	공간		가구	디스플레이	요소	소개	% ¹	% ²				% ³	
	지침	역사	심리	방법									A	B											
건국	5	1		1		1	3	3	14	66.7	16.7	3.6	1	2	1		3	7	33.3	2.3	1.8	21	5.4		
경성	1					1			2	13.3	2.4	0.5		10		2	1	13	86.7	4.2	3.3	15	3.8		
계명	3	1		1			1	1	7	87.5	8.3	1.8	1	1			1	12.5	0.3	0.3	8	2.0			
국민	1								1	14.3	1.2	0.3		5	1			6	85.7	1.9	1.5	7	1.8		
성신		1							1	3.2	1.2	0.3		23	3	1	3	30	96.8	9.7	7.7	31	7.9		
숙명		2		1					3	33.3	3.6	0.8	1	4		1		6	66.7	1.9	1.5	9	2.3		
연세	4	1	3	4			1		13	100	15.5	3.3					0	0	0	0	13	3.3			
이화							1	1	2	4.8	2.4	0.5	25	11		2	2	40	95.2	13.0	10.2	42	10.7		
조선	1					1	5	1	8	66.7	9.5	2.0		3		1		4	33.3	1.3	1.0	12	3.1		
중앙	4	1	1	6	1		2	1	16	76.2	19.0	4.1	1	4				5	23.8	1.6	1.3	21	5.4		
홍익				2					2	1.1	2.4	0.5	23	139	5	4	8	179	98.9	58.1	45.7	181	46.2		
기타	4	1	1	1			7	1	15	46.9	17.9	3.8		7	2	1	7	17	53.1	5.5	4.3	32	8.2	+1	
합계	23	8	5	16	1	3	20	8	84			21.4	51	209	12	12	24	308			78.6	392	100	+1	
		52												260											

<표 10> 1993-9 석사논문의 수여학교와 연구대상의 상관 분포

대상 학교	공간	가구	디스플레이	건축	조명	색채	조경	재료	장식	요소	경영, 공사	합계	%	비고
건국	10	1	1		2	1			2	1	3	21	5.4	
경성	11		3	1								15	3.8	
계명	6					1					1	8	2.0	
국민	6	1										7	1.8	
성신	24	3	1		1				2			31	7.9	
숙명	8		1									9	2.3	
연세	12					1						13	3.3	
이화	36		2	1		1			1		1	42	10.7	
조선	4		2		3	2					1	12	3.1	
중앙	17	1				1				1	1	21	5.4	
홍익	164	5	4	3	1	2	1	1				181	46.2	
기타	14	2	1		4	4	3		2	1	1	32	8.2	+1
합계	312	13	15	5	11	13	4	1	7	3	8	392	100	+1
%	79.6	3.3	3.8	1.3	2.8	3.3	1.0	0.3	1.8	0.8	2.0	100		

참고문헌

1. 오혜경, 한국 실내디자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연구 경향, 한국실내 디자인학회 논문집 제22호, 2000.3
2. 최병상, 미술과 연구, 보성각, 1996
3. 박영순 외 3인, 주거환경 디자인의 색채계획 연구방법에 대한 고찰,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제10호, 1997.3
4. 신화경·이수진, 실내디자인 관련 연구의 경향 분석,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제12호, 1997.9
5. 임인재, 논문작성법,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6
6. 실내디자인학론, 한국실내디자인학회, 1997
7. John F. Pile, Interior Design, Prentice Hall, 1995
8. 한국실내디자인학회, 공간별 시설 분류표, 1999
9. 국회 전자 도서관 www.nanet.go.kr

<접수 : 2000. 4. 29>